



2012. 10. 17.

## 세계 전자책(e-Book) 시장의 현황과 이슈 분석

- I.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II. 세계 전자책 시장의 현황
- III. 전자책 시장의 쟁점과 이슈 분석

KOCCA  
FOCUS

작성 : 노준석 / 통계정보팀 팀장, [yes0253@kocca.kr](mailto:yes0253@kocca.kr)

이용준 / 대진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yongjun@daejin.ac.kr](mailto:eyongjun@daejin.ac.kr)



## 요약

### I.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2011년 기준, 전년대비 1.3% 감소한 1,120억 달러로서 종이책 시장 1,065억 달러(95.1%)와 전자책 시장 55억 달러(4.9%)로 구성
  - 향후 5년간 세계 출판시장은 연평균 0.6%씩 성장해 2016년 1,157억 달러로 현 시장을 유지할 전망
  - 종이책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2.3%씩 감소해 949억 달러 규모가 되는 반면, 전자책 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30.3%씩 성장해 2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6년 세계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전자책 시장 비중은 2011년 4.9%에서 2016년 18%로 증가할 전망

### II. 세계 전자책 시장의 현황

- 주요 국가별 전자책(e-Book) 시장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2011년 20억 7천만 달러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31.9%씩 성장해 1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미국에서 전자책 단말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월 현재 Kindle 62%, Nook 22%, Sony Reader 2% 등. 반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의 시장 점유율은 iPad 61%, Kindle Fire 14%, Samsung Galaxy 5%
  - 영국 전자책 시장은 2010년의 경우, 2009년 보다 38% 성장한 1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하고, 이용 가능한 전자책 종수는 1백만 종. 전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12% 차지 예상
  - 독일의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시장에서 1%를 차지하는 4,240만 유로. 독일은 전자책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fixed book price systems)를 시행하고, 종이책에 적용하고 있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전자책에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전자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린 편
  - 일본 전자책 시장은 2011년에 8억 5천만 달러에서 2016년에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전자책에서 디지털만화 비중도 높아 2005년 34억엔, 2006년에는 190억엔, 2008년 356억엔으로 가파른 성장세
  - 중국 내 1억 8,800만명이 온라인으로 책을 읽은 것으로 조사.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전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릴 목표로 출판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
  - 한국의 전자출판 시장규모(전자책, 전자사전, 모바일북, 전문지식·학술논문·도서본문 검색, 오디오북, 솔루션, 기타 디지털출판 등)는 2006년 3,393억원, 2008년 5,551억원, 2010년 6,908억원, 2011년 8,328억원으로 연평균 19.67%의 성장. 반면 PWC보고서의 한국의 전자출판 시장은 2011년 기준 2.82억 달러 수준이며, 향후 연평균 7.8%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 한국의 전자출판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단말기의 보급 확대에 의해 ePub 전자책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입 해외저널 디지털출판물 시장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III. 전자책 시장의 이슈와 쟁점 분석

-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정가제 판매) 문제
  -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종이책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제도와 부가가치세(VAT) 감면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전자책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자동적으로 적용하진 않음
  -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은 전자책의 할인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영국, 미국 등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전자책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이 얼마든지 용인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종이책이나 전자책 모두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법으로 지키게 규정해 놓았고(전자책의 정가 판매는 올 7월부터 시행됨), 일본도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채택하여 전자책의 경우도 정가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VAT) 감면 문제
  - 대부분 국가에서 종이책은 일반상품의 부가가치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그러나 전자책은 일반상품의 부가가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종이책보다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 편
  - 대륙별 주요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의 부가가치세율을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국 중 24%가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상품보다 현격히 낮게 적용하고 있었음. 그러나 전자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일반상품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음
- 불법복제 문제
  - 디지털 방식의 불법복제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불법복제보다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불법복제물을 단속해 폐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등은 대부분 전자책 출간을 꺼려왔음
  - 불법 복제 전자책의 유통은 토렌트 사이트에 가면 많은 출판콘텐츠 소스파일을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장애인용 전자도서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입력한 파일이 유출되어 해당사이트에서 서비스됨
- 전자책 유통 방식의 문제
  -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권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태블릿PC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선호
  - 중국의 전자책 산업은 현재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 복제 및 해킹, 전자책 표준 포맷이 무시되고 업체마다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 20여 개의 전자책 포맷 등으로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걸림돌임
  - 전자책 유통방식은 도매 모델(wholesale model)과 대행 모델(agency model)으로 나뉘고 있는데, 전자책 콘텐츠의 유통방식과 이익배분 문제를 둘러싼 유통업체간 또는 출판사와 유통업체간의 갈등이 발생
- 1인 출판사의 확산과 출판사 무용론
  - 전자책 단말기의 확산과 전자책 수요 증가는 1인 출판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촉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음. 이미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장르문학은 전자책 플랫폼을 통한 1인 출판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기존 작가들도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음
  - 왓패드(wattpad), 스매시워드(smashword)나 룰루(lulu)등 직접출판 전자책 사이트에서 올려 출판하기도 하지만, 아마존이나 애플 등에서 제공하는 직접출판 전자책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통



# I.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1. 서론

- 〈미국인의 독서습관, 종이책과 전자책의 소비형태 조사〉(PewResearch, 2012.2)에 따르면, 미국의 성인(18세 이상 2,986명) 중 29%가 전자책 단말기나 태블릿PC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1년에 24권인데 반해, 전자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연간 15권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자책을 읽은 사람들 중 88%가 지난 1년 사이에 종이책도 읽었으며,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의 평균 독서량은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에 비해 매우 높았음. 그 결과,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61%)은 종이책을 읽는 사람들(54%)에 비해 책을 빌리지 않고 구매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남
  - 한편 종이책은 전자책보다 어린이와 함께 독서할 때, 다른 사람들과 책을 함께 보고 싶을 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책을 빨리 보고 싶을 때, 여행할 때,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고를 때, 침대에서 책을 읽을 때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전자책의 이용자를 인구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50세 이하의 사람들, 백인들, 대학졸업자 이상,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 전자책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세계 출판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이책 시장과는 달리 전자책 시장이 확실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아이패드와 비롯한 태블릿PC의 등장과 보급 증가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단말기에 의존하던 전자책 시장의 외연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 다양한 전자책 단말기의 등장은 출판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
  - 아이팟과 음원시장, 아이폰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시장의 관계와 유사하게 향후 전자책 단말기와 전자책 시장은 출판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그림 1<sup>1</sup> 디지털화에 의한 출판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 출처: 문화부(2012),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 우리나라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소비방식의 변화에 따라 출판 수요 감소와 종이책 시장의 정체가 지속되는 등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
  - 문화부는 2012년 9월, ‘글로벌 출판콘텐츠 문화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2~2016)> 발표, 세부적으로 출판콘텐츠 경쟁력 강화, 선진 유통환경 조성,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해 5대 정책 과제와 23개 이행 과제 제시
  - 특히 전자출판을 육성하기 위해 전자책 콘텐츠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전자책 형식다중화(OSMF) 제작환경을 구축하고, 전자책 공동제작센터 활성화 및 산학 연계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또한 전자출판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과 독자 중심의 전자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자책 불법복제 추적 차단 및 정보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책 콘텐츠 메타데이터 DB 구축, 주문형 출판(POD) 지원 등 추진
  - 지난 2010년 4월, 문화부는 ‘전자출판산업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국내 전자출판 산업기반 구축, 콘텐츠 창작 및 공급기반 확충, 전자출판 유통시스템 선진화, 전자출판 기술혁신 및 표준화,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등 5대 전략과 15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이 글에서는 세계 전자책(e-Book) 시장의 현황과 트렌드를 살펴보고, 논의되고 있는 중점이슈 분석을 통해 국내 전자책 시장이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 제시

## 2. 유형별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2011년 세계 출판시장 규모는 전년에 비해 1.3% 감소한 1,120억 달러로 집계되어, 수년간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침체되지 않았음을 입증
  - 출판시장을 종이책 시장과 전자책 시장으로 구분해 보면, 종이책 시장(오디오북 포함)은 1,065억 달러, 전자책 시장은 55억 달러이며,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5.1%, 4.9%로 종이책 시장이 절대 규모를 차지
  - 이를 세분화하면, 종이책 시장에서 소비자 도서는 665억 달러, 교육용 도서는 400억 달러이며, 전자책 시장에서 소비자 도서는 41억 달러, 교육용 도서는 14억 달러를 기록
  - 이를 비중으로 확인하면, 소비자 도서시장에서 종이책은 94.2%, 전자책은 5.8%, 교육용 도서시장에서 종이책은 96.6%, 전자책은 3.4%를 각각 차지
- 향후 5년간 세계 출판시장은 연평균 0.6%씩 성장해, 2016년 1,15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종이책 이용자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전자책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종이책 시장은 2011년 1,065억 달러에서 연평균 2.3%씩 마이너스 성장해 2016년 949억 달러로 줄어드는 반면, 전자책 시장은 2011년 55억 달러에서 연평균 30.3%씩 성장해 2016년에는 20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 결과, 2016년 세계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4.9%에서 2016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전자책 시장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도서의 판매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시 교육용 도서시장도 종이책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BISG&APP, 2012)

표 1 | 세계 출판시장의 유형별 현황과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p)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2012~16)
종이책 시장 (오디오북 포함)	110,171	106,527	103,948	101,523	99,295	97,084	94,954	
성장률	-1.2	-3.3	-2.4	-2.3	-2.2	-2.2	-2.2	-2.3
전자책 시장	3,359	5,539	8,225	11,183	14,328	17,550	20,785	
성장률	56.8	64.9	48.5	36.0	28.1	22.5	18.3	30.3
출판시장 전체 (종이책+전자책)	113,530	112,066	112,173	112,706	113,623	114,634	115,719	
성장률	-0.1	-1.3	0.1	0.5	0.8	0.9	0.9	0.6

\* 출처 :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2~2016

### 3. 권역별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

- 2011년 세계 출판시장을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은 324억 달러(28.9%), EMEA지역은 447억 달러(39.9%), 아시아·태평양지역은 312억 달러(27.8%), 라틴아메리카지역은 35억 달러(3.1%)를 각각 기록
-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북미시장 1.1%, EMEA시장 0%, 아시아·태평양시장 0.7%, 라틴아메리카시장 3.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표 2 | 세계 출판시장의 현황과 전망(권역별)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2007	2008	2009	2010	2011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16 CAGR
북미	33,906 6.7	32,722 -3.5	32,841 0.4	33,611 2.3	32,458 -3.4	32,253 -0.6	32,494 0.7	33,018 1.6	33,657 1.9	34,304 1.9	1.1
EMEA	47,155 2.6	47,252 0.2	46,080 -2.5	45,264 -1.8	44,770 -1.1	44,454 -0.7	44,367 -0.2	44,435 0.2	44,594 0.4	44,810 0.5	0.0
아시아 태평양	30,085 8.2	31,592 5.0	31,340 -0.8	31,160 -0.6	31,240 0.3	31,752 1.6	32,004 0.8	32,178 0.5	32,236 0.2	32,283 0.1	0.7
라틴 아메리카	3,183 3.1	3,378 6.1	3,338 -1.2	3,495 4.7	3,598 2.9	3,714 3.2	3,841 3.4	3,992 3.9	4,147 3.9	4,322 4.2	3.7
전체	114,329 5.3	114,944 0.5	113,599 -1.2	113,530 -0.1	112,066 -1.3	112,173 0.1	112,706 0.5	113,623 0.8	114,634 0.9	115,719 0.9	0.6

\* 출처 :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2~2016





○ 북미지역의 출판시장

- (전체 출판시장 규모) 2011년 325억 달러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1.1%씩 성장해 343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종이책 시장 규모) 2011년 290억 달러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5.9%씩 마이너스 성장해 214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전자책 시장 규모) 2011년 3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6년까지 연평균 29.9%씩 성장해 129억 달러에 이를 전망. 특히 소비자 도서는 2011년 27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32.2%씩 성장해 109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교육 도서는 2011년 7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20.5%씩 성장해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출판 유통시장은 아마존과 반스앤노블에 의해 좌우되는데, 전자책이 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35%나 늘어 50억 4천만 달러에 달함
- 미국에서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PC의 판매량이 2천만대가 넘음에 따라 2016년 미국의 소비자 도서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

표 3<sup>1</sup> 세계 출판시장의 유형별 현황과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p)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2012~16)
종이책 시장 (오디오북포함)	31,805	28,972	26,919	25,266	23,879	22,587	21,392	
성장률	-0.3	-8.9	-7.1	-6.1	-5.5	-5.4	-5.3	-5.9
전자책 시장	1,806	3,486	5,334	7,228	9,139	11,070	12,912	
성장률	90.7	93.0	53.0	35.5	26.4	21.1	16.6	29.9
출판시장 전체 (종이책+전자책)	33,611	32,458	32,253	32,494	33,018	33,657	34,304	
성장률	2.3	-3.4	-0.6	0.7	1.6	1.9	1.9	1.1

\* 출처 :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2~2016

○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EMEA)지역의 출판시장

- (전체 출판시장 규모) 2011년 448억 달러이며, 계속된 경제위기로 2~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2016년에 448억 달러로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EMEA 지역에서 서유럽의 출판시장 규모는 2011년 395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0.1%씩 미약한 성장세를 보여 39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중유럽/동유럽의 출판시장 규모는 2011년 35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3%씩 마이너스 성장해 320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중동·아프리카의 출판시장 규모는 2011년 18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해 1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종이책 시장) 2011년 440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1.6%씩 마이너스 성장해 405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 로 예상. 특히 소비자 도서는 2011년 294억 달러에서 연평균 1.5%씩 마이너스 성장해 2016년 273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며, 교육 도서도 2011년 145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9%씩 마이너스 성장해 132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전자책 시장) 2011년 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6년까지 연평균 39.7%씩 성장해 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특히 소비자 도서는 2011년 3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49.4%씩 성장해 26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교육 도서도 2011년 4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29.8%씩 성장해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EMEA 지역에서 가장 큰 출판시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출판시장 규모는 2011년 97억 달러. 다음으로 큰 출판시장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로 서유럽 국가들임(BISG&APP, 2012)
  - EMEA의 출판시장은 세계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자책 시장은 8억 달러로 미약함. 비록 종이책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전자책은 점차 종이책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음(ReportLinker, 2012)
  - 이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엄격한 재판매 가격유지제도(RPM, 도서정가제와 유사)를 시행하고 있고(영국 제외),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의 면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서(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 제외), 종이책 시장은 비교적 안정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sup>1</sup> EMEA의 지역별 출판시장 현황과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p)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2012~16)
서유럽	39,913	39,528	39,275	39,219	39,317	39,483	39,701	0.1%
중유럽 및 동유럽	3,571	3,455	3,382	3,339	3,292	3,263	3,235	-1.3%
중동 및 아프리카	1,780	1,787	1,797	1,809	1,826	1,848	1,874	1.0%
EMEA 지역 전체	45,264	44,770	44,454	44,367	44,435	44,594	44,810	0.0%

\* 출처 :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2~2016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출판시장

- (전체 출판시장 규모) 2011년 312억 달러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0.7%씩 성장해 3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종이책 시장 규모) 2011년 300억 달러에서 2016년 289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 도서는 2011년 177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0.4%씩 마이너스 성장해 173억 달러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도서도 2011년 123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3%씩 마이너스 성장해 115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전자책 시장 규모) 2011년 1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6년까지 연평균 22.6%씩 성장해 3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특히 소비자 도서는 2011년 11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15.7%씩 성장해 23





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 도서도 2011년 1억 5천만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50.7%씩 성장해 12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표 5<sup>1</sup>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의 출판시장 현황과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0년	2011년(p)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2012~16)
호주	1,915	1,889	1,945	1,988	2,022	2,057	2,091	2.1
중국	10,859	10,669	10,615	10,544	10,492	10,435	10,371	-0.6
인도	1,972	2,601	2,765	2,906	3,050	3,193	3,332	5.1
일본	11,544	11,151	11,440	11,535	11,540	11,438	11,342	0.3
한국	1,665	1,716	1,736	1,742	1,736	1,729	1,724	0.1
대만	884	878	879	876	883	890	895	0.4
태국	925	941	957	973	984	995	1,003	1.3

\* 출처 :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2~2016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112억 달러)과 중국(107억 달러)은 시장의 70%를 점유. 일본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0.3%씩 성장해 113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중국시장은 2016년까지 0.6%씩 마이너스 성장해 104억 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BISG&APP, 2012). 특히 중국은 2011년에 온라인 서점과 전자책의 매출 급증으로 오프라인 서점이 많이 폐업하기도 했음
- 인도는 가장 크게 성장하여 2011년 26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5.1%씩 성장해 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한국은 17억 달러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0.1%씩 성장해 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출판시장

- (전체 출판시장 규모) 2011년 36억 달러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3.7%씩 성장해 43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종이책 시장 규모) 특히 소비자 도서는 2011년 16억 달러에서 연평균 2.3%씩 성장해 2016년 17억 달러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도서는 2011년 20억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3.9%씩 성장해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전자책 시장 규모) 2011년 4백만 달러로 미미한 시장이나, 2016년까지 94.4%씩 성장해 1억 1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 특히 소비자 도서는 2011년 4백만 달러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78.8%씩 성장해 7천 3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며, 교육 도서도 2016년 8천 8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ReportLinker, 2012)
- 지금까지는 고가의 단말기들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사이의 제한된 효용성, 전자책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시장이 낙후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전자책 단말기가 증가하고 전자책 서점도 많이 생기면서 독자들의 전자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남미 시장의 53%를 차지하는 브라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독서량을 2020년까지 두 배로 권장하는 정책과 모든 도시에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2012년 아마존의 킨들 단말기 유통 등으로 급성장이 예상. 이밖에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멕시코(7억 4천만 달러)와 아르헨티나(5억 1천만 달러)의 출판시장도 향후 5년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향후 5년간 라틴아메리카 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

표 6<sup>1</sup> 라틴아메리카지역 주요 국가의 출판시장 현황과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p)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2012~16)
아르헨티나	499	513	531	554	582	611	640	4.5
브라질	1,847	1,924	1,998	2,065	2,142	2,223	2,319	3.8
칠레	179	181	186	193	203	213	224	4.4
콜롬비아	217	220	227	234	244	251	261	3.5
멕시코	742	749	761	783	809	837	866	2.9

\* 출처 :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 Media Outlook 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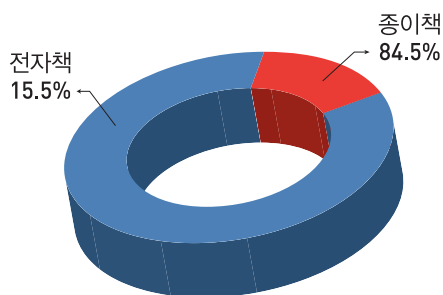
## II. 세계 전자책 시장의 현황

### 1. 주요 국가별 전자책(e-Book) 시장의 현황과 전망

○ 미국의 전자책 시장

-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2011년 20억 7천만 달러이며, 2016년까지 연평균 31.9%씩 성장해 1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2016년 미국의 소비자 도서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 픽션과 논픽션 분야의 전자책은 2010년 8억 6천 9백만 달러에서 2011년 20억 7천만 달러로 성장했고, 판매량도 두 배 이상 늘어나 3억 8천 8백만 부에 달함. 반면 종이책은 많이 위축되어 픽션과 논픽션 분야에서 0.5% 성장으로 139억 7천만 달러를 기록 (BISG&APP, 2012)
- 2011년 미국에서 전자책 시장은 픽션과 논픽션 출판 분야에서 15.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이는 2010년의 6.4%나 2008년의 0.6%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장(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특히 성인 픽션분야에서 전자책은 12억 7천만 달러를 차지해 30%의 비중을 차지

그림 2<sup>1</sup> 미국의 픽션/논픽션 분야 전자책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규모



구분	2011년	2010년	증감율
전자책 시장규모	20억 7천만 달러	8억 6천 9백만 달러	238%
전자책 판매부수	3억 8천 8백만 권	1억 8천 5백만 권	210%

\* 출처 : BISG&APP, BookStat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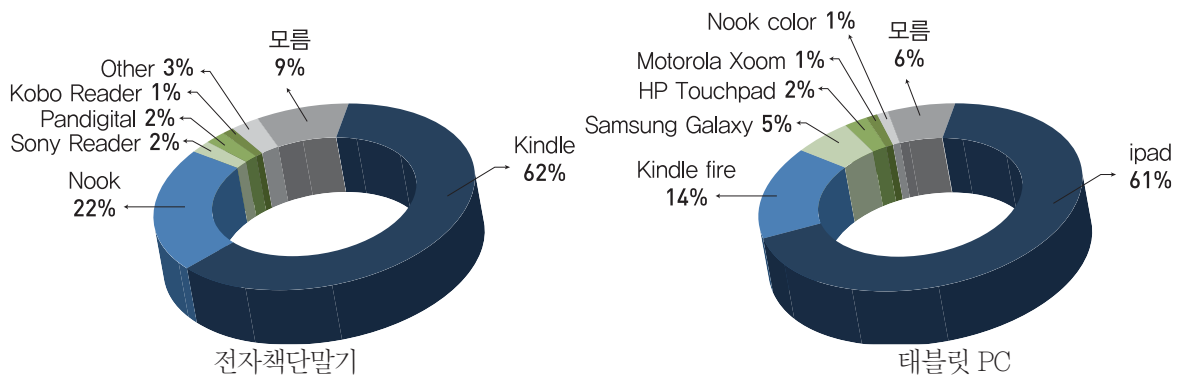
\* 미국출판협회는 출판시장을 픽션과 논픽션 분야, 청소년분야, 종교분야, 고등교육, 유아·초등교육, 학술도서 분야로 구분

- 미국 전자책의 평균 판매가격이 2010년 기준 7.72 달러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은 점차 전자책으로 독서를 하는 경향이 증가. 2011년 5월 BISG(Book Industry Study Group)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7%의 독자들이 전자책 구매가 늘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9개월 전 48%의 독자가 전자책의 구매를 늘렸다는 답변에 비해 19%가 증가한 수치(Ruediger Wischenbart, 2012).
-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서점이자, 전자책 서점임. 미국에서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70%가



- 아마존을 이용. 2011년 2분기에 아마존은 전년 동기대비 51% 늘어난 91억 1천만 달러의 매출 발생. 이는 미국시장에서 올린 54억 1천만 달러와 유럽시장에서 올린 45억 달러를 합한 것. 특히 아마존 킨들 스토어(Kindle Store)에서는 95만 종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으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11종 중 110종을 전자책으로 이용 가능
- 반스앤노블(Barnes & Noble)에서는 2백만 종이 넘는 전자책을 이용 가능한데, 종이책 판매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자책과 전자책 단말기 누크(Nook)의 판매는 전년대비 140%의 성장을 기록(Lee Rainie, 2012)

그림 3<sup>1</sup> 미국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PC의 시장점유율



- 미국에서 전자책 단말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월 현재 Kindle 62%, Nook 22%, Sony Reader 2% 등. 반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의 시장 점유율은 iPad 61%, Kindle Fire 14%, Samsung Galaxy 5%(ReportLinker, 2012)
- 미국 출판사들도 전자책 매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 퍼블리셔즈 위클리 에 따르면, 사이먼앤슈스터(Simon&Schuster)는 2011년 상반기 종이책 매출액이 10% 감소했지만, 전자책 매출액은 115% 성장하였고, 펭귄출판사(Penguin Group)도 2011년 상반기 종이책 매출액은 13% 감소한 반면, 전자책 매출액은 64% 증가

○ 영국의 전자책 시장

- 영국의 전자책 시장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성장. 영국출판협회(British Publishers Association, BPA)에 의하면, 2010년 영국 전자책 시장은 2009년보다 38% 성장한 1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하고, 이용 가능한 전자책 종수는 약 1백만 종
- 영국에서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에서 2010년 6%, 2011년 1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전자책 매출의 80%는 도서관 판매(B2B)에서, 20%는 개인 구매(B2C)에 의해 이루어짐(Informa, 2012)



- 영국의 전자책 시장은 학술 출판과 전문서적 분야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임. 출판사로는 Taylor and Francis, Springer, Pearson, Penguin, Bloomsbury 등이 학술 출판과 전문서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Penguin 출판사의 2011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80% 성장하는 등 전자책 분야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2011년 2분기에는 해외수출 중 전자책이 14%를 차지. Bloomsbury도 2010년 전자책 매출이 230만 달러로 출판사 전체 매출에서 10%를 차지
  - 영국인들은 아직도 컴퓨터를 통해 전자책을 읽는 습성이 강하며(45%), 별도의 디지털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책을 읽는 사람 중 킨들 이용자가 14%, 소니 단말기 이용자가 6%, 아이패드 이용자가 5%, 아이폰 이용자가 12%인 것으로 조사됨(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 독일의 전자책 시장
- 최근 성장 진행 중에 있는 독일의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시장에서 1%를 차지하는 4,240만 유로. 독일은 전자책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fixed book price systems)'를 시행하고, 종이책에 적용하고 있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전자책에 적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전자책의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임
  - 아직까지 독일 국민들은 종이책으로 독서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2011년 초반에 이뤄진 조사에 의하면, 독일 국민들 중 78%는 화면으로 책을 읽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85%는 종이책을 읽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 PC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자책의 판매 속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독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 타이틀은 2011년 상반기에 2만 5천 종(Informa, 2012). 독일에서 전자책은 픽션분야가 인기가 있는데, 전체 판매량에서 60%를 차지. 반면 기행문, 청소년, 어린이 서적은 전자책분야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함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독일의 주요 출판사인 Random House, the Holtzbrinck imprints, Lübbe 등이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출판하는 전략을 구사
  - 독일에서 전자책의 주요 유통 채널로는 Libreka(www.libreka.de), Libri (www.libri.de), Ciando(www.ciando.com) 등이 있음. 이 중 독일의 최대 전자책 유통채널인 Libreka는 2011년 1분기에 전자책 매출이 5만 유로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는 150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Ruediger Wischenbart, 2012)
  - 또한 독일 최대의 서점이자 전자책의 유통도 겸하고 있는 Libri는 자사의 온라인 사이트 리브리닷컴에서 2011년 11월에 처음으로 전자책 매출이 다른 형태의 책(종이책과 오디오북 등) 판매를 앞섰다고 발표
  - 이처럼 전자책 판매의 증가는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단말기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2011년 1월까지 주로 이용되는 전자책 단말기는 Sony eReader가 35%를 차지하였으나, 4월 아마존의 킨들 독일버전이 출시되어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 그러나 독일에서는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보다 태블릿PC 판매율 증가 속도가 훨씬 높아, 2011년 말 전자책 단말기 판매량은 45만대에 불과한데 비해, 태블릿PC의 판매량은 210만대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태블릿PC는 독일 내 전체 P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가 됨(buchreport, December 14, 2011)
  - 독일에서 판매되는 전자책 단말기의 가격은 아마존 킨들이 99유로, 코보 터치(Kobo Touch)와 소니 이리더(Sony eReader)가 149유로



### ○ 프랑스의 전자책 시장

- 프랑스 출판협회는 2010년 프랑스 온라인 전자책 시장이 전체 출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하는 4백만 유로이며, 이용 가능한 전자책 종수는 7만 5천 종이라고 발표. 그러나 전체 디지털 도서의 출판시장 점유율은 2.5%(Informa, 2012)
- 시장조사회사인 Les Echos는 2011년까지 프랑스에서 판매된 태블릿PC는 145만대로 추정. 전자책 단말기 중 킨들과 코보는 프랑스 버전이 비교적 늦게 2011년 4분기에 론칭되어 아직까지 판매에서 큰 성과가 없으며, 프랑스 기업 Bookeen이 만든 전자책 단말기 Cybook Odyssey도 129유로에 판매
-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종이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할인혜택을 2011년부터 전자책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종이책과 전자책, 오디오북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공통적으로 5%(그러나 2012년 4월부터 출판 분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7%로 올라 다소 부가가치세 감소혜택이 줄게 되었음)
- 반면에 전자책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랑법, Loi Lang)'를 2012년 1월부터 적용 (Ruediger Wischenbart, 2012)
- 프랑스에서 전자책의 유통회사들은 Numilog, Eden- Livres, Epagine, Eplateforme, 1001Libraires, Fnac 등이 있는데, Numilog이 선도 기업이고, Fnac와 1001Libraires이 뒤따르는 상황. 특히 Fnac는 책뿐 아니라 음악과 영화 유통에서도 프랑스에서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자책 유통 시장에도 적극적(Livres hebdo)
- 프랑스는 자국 출판문화 산업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출판계와 협력아래 도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서둘러 왔음. 범 유럽이 추진한 유럽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인 유로피아나(Europiana)도 프랑스의 이러한 도서출판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임
-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대형 출판사가 잇따라 구글 북스 사업에 참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랑스 정부의 출판지식 분야 자주권 보호정책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2011년 8월에 La Martinière 출판사가 구글과 전자책 사업 계약을 맺었고, 9월엔 Albin Michel, Flammarion, and Gallimard 출판사가 계약을 체결했음. 특히 Gallimard 출판사는 CEO가 프랑스 출판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정부에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음(ReportLinker, 2012)

### ○ 일본의 전자책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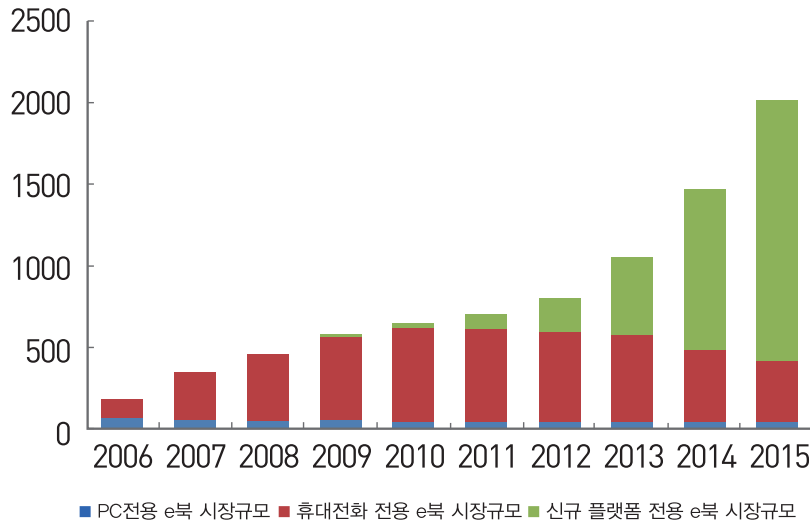
-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소니의 전자책 단말기와 애플의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휴대폰을 기반으로 발달해 있었고, 2006~2007년에는 일본 베스트셀러 10위 중 휴대폰 소설이 4종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전자책이 활성화되어 있음
- 전자책 시장 중에서 디지털 만화의 비중이 높아 2005년 34억 엔, 2006년에는 약 190억 엔, 2008년 356억 엔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음. 특히 출판만화는 잡지만화 시장이 쇠퇴함에 따라 출판사들이 전략적으로 디지털화를 활발히 추진한 결과로 디지털 만화시장이 성장하기도 했음(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그림 4 | 2006~2015년 일본 전자도서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엔)



\* 출처 : Impress R&D(2011. 12.), 스트라베이스 재인용

- 최근에는 휴대폰 대신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나 태블릿PC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습관이 바뀌면서 전자책 시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음. 따라서 2011년에 8억 5천만 달러이던 일본의 전자책 시장은 2016년에는 1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BISG&APP, 2012)
- 일본 정부가 90% 지분을 가진 민관합동펀드(산업혁신기구)는 2013년 2월에 출판업계가 연합설립하는 출판디지털기구에 150억 엔을 투자할 계획. 출판디지털기구는 고단샤 등 3개 대형 출판사와 인쇄회사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회사로 100만 권의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 계획. 일본 정부가 100% 출자한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도 미쓰이물산과 도시바, 엔이시 등과 함께 전자책 유통 서비스회사인 북 라이브와 자본제휴를 발표하는 등 전자책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
- 일본에서 전자책을 유통하는 주요 온라인 서점들은 아마존 저팬을 비롯하여 Seven & Y, 키노쿠니아(Book Web), 분쿄도(J-Book), 준쿠도(Junkudo Book Web), 라쿠텐 북스, 그리고 BookOne(bk1) 등 (Japan Federation of Printing Industries, 2011)
- Fujitsu는 2011년 6월 이북스토어 'BooksV'를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전자책 비즈니스 시작. Fujitsu는 일본 출판업계 최대 사업자 중 하나인 DNP(Dai Nippon Printing) 그룹과 제휴를 통해 일본 최대 규모인 33만 종 이상의 콘텐츠를 확보했으며, Fujitsu 계열사 내 콘텐츠 및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업자와 공조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구조를 구축.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용 전자책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



표 7 | 일본의 주요 전자책 서점 및 보유 콘텐츠 현황

스토어명	기업명	보유콘텐츠 수
TSUTAYA GALAPAGOS	Sharp	서적: 2만 7,213점 / 잡지: 359점
Reader Store	Sony	서적: 17,298 / 만화: 5,701
Honto	2D Focto	비공개(약 2만여 점 추정)
Book Live!	Bookslive!	약 2만 5천 점
Book Place	Toshiba	1만 5,859점
LISMO book Store	KDDI	비공개
Softbank Book Store	Softbank	20만 점 이상
BookV	Fujitsu	33만 7,986점(특집 콘텐츠 포함)
Kinoppy	키노쿠니야 서점	3,488점
e-Book Japan	e-Book Initiative Japan	약 4만 8천 점
Papyless	Papyless	17만 7,972점
BOOK★Walker	카도카와	비공개
BookGate	코사이도	약 600점
지구서점	NTT Solmare	약 560점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1a), 2011 해외 콘텐츠 시장조사

○ 중국의 전자책 시장

- 중국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인구도 많아 전자책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큼. 2011년 기준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보유 인구는 2억 명이 넘고 있으며, 이들은 휴대전화 화면으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 대체적으로 휴대폰 인터넷 사용자의 43.4%가 전자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4%에 불과, 그러나 구입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50%에 이르는 등 전자책 시장의 잠재력이 큼. 중국 인터넷네트워크정보센터(CINIC)에 따르면, 중국 내 1억 8,8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
- 또한 중국에서도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iSuppli Corp.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자책 단말기의 판매는 2010년 360만 대에 달해 2009년 210만 대에 비해 70.7%나 증가했으며 2014년까지 중국 내 전자책 단말기 판매는 1,76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12차 경제개발 5개년이 끝나는 2015년까지 전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을 25%까지 끌어 올릴 목표를 가지고 출판산업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2012 Global eBook Market). 또한 중국의 전자책 시장에서 20%가 넘는 시장점유율과 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 2대 전자책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경을 중국 내 전자책 출판의 허브로 육성하기 시작
- 특히 2010년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GAPP)는 전자책 산업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기존 출판사들이 전자책 시장을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업계의 협력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 있음. 그러나 중국의 전자책 산업은 현재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복제 및 해킹, 전자책 표준 포맷이 무시되고 업체마다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 20여 개의 전자책 포맷 등으로 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놓여 있는 상황(중국의 전자책 포준 포맷은 Apabi에서 개발한 CEB(China Ebook Format)을 사용)
- 중국 전자책 업계는 애플 아이패드와 아마존 킨들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전자책 시장 선점을 위해 전자책 단말기 및 콘텐츠로 사업영역을 확장. 예컨대, 전통 출판사인 중국출판집단공사(China Publishing Group Ltd.)와 상해세기출판집단(Shanghai Century Publishing Group)도 자체 전자책 단말기를 출시(China Publishing Today)
  -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차이나 모바일(CMCC)도 한왕(漢王, Hanwang), 대당(大唐, Datang), 화웨이(华为, Huawei), 방정(方正, Founder) 등 주요 전자책 단말기 업체, 400여개 출판사 등과 협력해 2009년부터 전자책서비스를 시작해 200만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 2012)
  -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책 단말기 제조업체 중 하나인 Hanvon은 1백만 대 이상의 전자책 단말기를 판매했으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 온라인 스토어인 www.hwebook.cn에서 13만종의 전자책 콘텐츠 이용 가능
  - 전자책 콘텐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산다문학사(盛大文学, Shanda Literature Group)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책 단말기인 Bambook과 상승작용을 하며 전자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2011년에는 회사이름을 Cloudary Corporation으로 바꾸고 더욱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온라인 문학시장에서 70%의 시장을 장악. Cloudary Corporation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산다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자회사로 www.qidian.com 등 독자 참여형 온라인 문학 사이트 6개와, 3개의 오프라인 출판사, 디지털 잡지사 및 오디오북 출판사 등을 보유
  - Cloudary Corporation의 온라인 문학사이트는 아마추어 작가를 포함한 저자들이 직접 올리는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1년 중반까지 140만 명의 저자들에 의해 520만 종의 온라인 문학콘텐츠가 등록됨. 이외에도 유명작가의 전자책 콘텐츠 1만권 이상을 이용할 수 있음(Ruediger Wischenbart, 2012)
  - 이외에도 중국에서 전자책 전용 유통 채널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곳은 중국 최대 출판사인 중국출판집단공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www.Dajianet.com 등이 있음
  -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아이패드 이용자가 늘어나 태블릿PC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책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 중국의 전자책 시장은 플랫폼 측면에서 자국의 업체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전자책 단말기 시장과 외국기업이 강세를 나타내는 태블릿PC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 2. 한국의 전자책 시장

### ○ 전자책 시장의 규모

-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 시장규모를 전자책, 전자사전, 모바일북, 전문지식·학술논문·도서본문 검색, 오디오북, 솔루션, 기타 디지털출판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 전자출판 시장규모는 2006년 3,393억 원, 2008년 5,551억 원, 2010년 6,908억 원, 2011년 8,328억 원으로 연평균 19.67%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반면 PWC 보고서의 한국 전자출판 시장은 2011년 기준 2.82억 달러 수준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연평균 7.8%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까지 4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교육용 전자도서의 경우.

세계 전자책(e-Book) 시장의 현황과 이슈 분석

코카포커스  
2012-12호 (통권 60호)



2015년까지 연평균 67.9% 성장 예상)

- 국내 전자출판시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ePub 전자책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입 해외저널 디지털출판물 시장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음

표 8<sup>1</sup> 국내 전자출판 시장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성장률
시장 규모	3,393	5,110	5,551	5,786	6,908	8,328	19,67%

\* 출처: 한국전자출판협회(2012)

표 9<sup>1</sup> 국내 전자책 발간 현황 (단위: 억 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총류	207	27,594	4,020	2,695	61,581	114,216	4,790	215,103
철학	21	472	12	4,406	38,270	7,569	234	50,984
종교	34	165	90	3,532	109,439	19,008	198	132,466
사회과학	351	2,862	132	34,537	469,610	53,008	5,131	565,631
순수과학	270	368	243	28,675	215,357	9,792	251	254,956
기술과학	256	1,035	224	114,886	800,573	84,118	8,699	1,009,791
예술	49	546	100	6,876	107,003	29,069	7,282	150,925
언어	204	1,665	177	10,848	67,330	6,053	1,674	87,951
문학	1,825	9,403	1,775	27,792	85,466	28,192	16,753	171,206
역사	64	919	214	12,635	80,332	9,815	310	104,289
합계	3,281	45,029	6,987	246,882	2,034,961	360,840	45,322	2,743,302

출처: 한국전자출판협회(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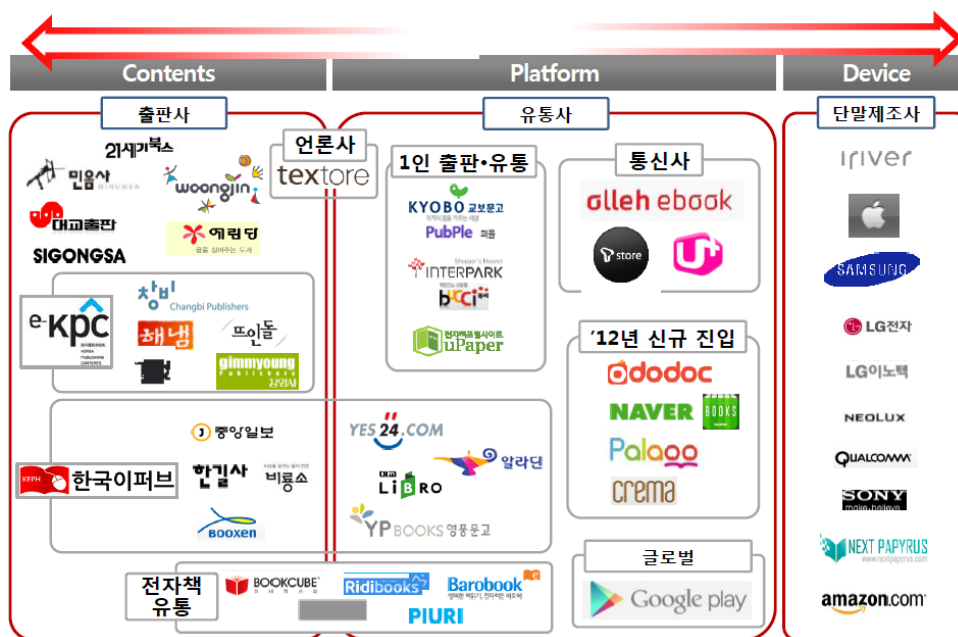
- 전자출판물 발간 현황의 경우,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전자출판물은 총 274만 3,302건. 이 중 종이책 단행본이 디지털로 전환된 것은 약 10만여 건으로 5% 미만. 반면 95%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책은 주로 전자사전, 디지털 학술논문, 저널, 테이 터베이스출판물, 교육용 인터랙티브 전자출판물,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음. 과거 교육용 CD롬 타이틀이 최근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재구성되어 신규 개발되는 등 단말기 유형이나 디지털출판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에 따라 콘텐츠 유형 역시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해나가고 있음
-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는 10만 여종에 불과하며, 콘텐츠 종류가 장르소설(50% 이상 비중) 등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 국내에서 전자출판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양질의 콘텐츠 미흡, 전자책 전용단말기 활성화 미흡, 표준·호환성 미흡, 기존 출판사 참여 부족으로 유통사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편집·교정 등을 거친 질 좋은 전자책 공급이 활발하지 못함. 유통사 제작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판사의 직접제작 비율은 약 14% 미만에 불과함(전자책 발행사 기준. 전자책 비발행사를 포함한 전체 출판계 기준으로는 2.2%의 출판사에서만 직접제작)
- 국내 전자출판시장은 아마존 '킨들' 출시 및 구글 '디지털도서관',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의 사업 진출 본격화
  - 삼성·LG·KT 등 대기업과 교보문고, 인터파크, 한국이퍼브 등 유통사, 한국출판콘텐츠 등이 참여하면서 경쟁체제 구축
  - 전자책 제작업체는 2007년에 34개사에서 2009년에는 127개사로 273% 증가. 전자출판 관련업체는 2007년 105개사에서 2009년 230개사로 119% 증가하는 등 전자출판 관련분야의 진출업체 증가 추세
  - 국내 종이책 출판사들 중심의 연합조직 설립으로 전자책 콘텐츠 공급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으나, 아직도 상당수 출판사들은 유통불안, 수익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전자출판에 소극적 입장
  - 정부의 디지털교과서·전자책 활성화 정책과 삼성,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자책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하에 전자책 시장과 콘텐츠 시장은 더욱 확대 예상

- **한국출판콘텐츠** : 뜨인돌, 한스미디어, 사회평론, 은행나무, 더난출판, 문학과지성사, 세종서적, 길벗 등 출판사 연합 중심
- **한국이퍼브** : 예스24, 알라딘, 리브로 반디&루니스, 북21, 북센, 비룡소, 영풍문고, 중앙일보, 한길사 등 유통사와 출판사 참여

그림 5<sup>1</sup> 국내 전자책 시장의 사업자 구도







### III. 전자책 시장의 이슈와 쟁점 분석

- 세계 전자책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산적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독특한 출판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은 그동안 전자책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따라서 당연히 해당국가의 출판사들도 전자책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 오지 않았음
  - 최근에 와서는 확실히 유럽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10년 상반기까지 유럽의 출판사들은 미국과 달리 종이책 위주의 전통적인 출판 시장이 급격히 디지털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흐름이 완연히 보였음
  - 그러나 2010년 하반기부터 국내 출판시장에서 전자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서서히 갖춰져 가더니 2011년부터는 보다 많은 출판사와 유통분야가 전자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2011년 4월 아마존이 독일에 킨들 스토어를 설립하자, 전자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전자책 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이 되자, 그동안 종이책 위주로 성립되어 있던 각국의 출판관련 제도와 정책은 전자책 환경과는 어긋나는 경향이 많이 노출 되었음. 따라서 세계 전자책 시장의 이슈와 쟁점을 법·제도적 측면, 디지털 도서관의 대응문제, 불법 복제문제, 유통 방식에 대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1. 전자책 시장의 트렌드

-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책 콘텐츠는 80만 종이 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도 200만 종이 될 정도로 전자책이 읽기가 일상화되고 있음
  -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권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태블릿PC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선호. 유럽권에서는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한 태블릿PC가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중. 아마존은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킨들이라는 전자책 단말기와 태블릿PC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 이처럼 세계 전자책 시장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도서의 판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교육용 도서시장도 종이책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책은 여성 독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한 어린이 도서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중년 독자들이 다시 책을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자기계발서와 전문서적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
- 국내 전자책 시장은 아직 큰 변화가 없어 전망이 분분함. 하지만 전자책 단말기 보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의 성과가 확연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한 사람은 전자책 구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미국의 전자책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서 보듯이, 그동안 국내 전자책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부터 매출이 증가
  - 2011년 교보문고의 전자책 매출은 전년보다 78% 증가한 120억 원에 달했으며, T스토어를 운영하는 SK





플래닛은 2011년 전자책에서 70억 원의 매출을 기록. 특히 교보문고의 경우, 전체 전자책 매출 중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된 비중이 60%가 넘음

- 전자책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자책 독서량도 증가
  - 최근 교보문고에서 발표한 <2011 직장인 독서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책 독서량은 지난 한 해 평균 읽은 책 16권 중 2권으로 조사. 이처럼 전자책 판매량이 늘고 전자책 독서가 증가하면서 국내 전자책 시장도 서서히 확대되고 있음
  - 여기에 전자책 단말기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시장의 훈풍’이 불고 있는 것임. 그러나 향후 국내 전자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 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우선 보다 많은 전자책 콘텐츠의 확충이 시급하고, 적정한 전자책 콘텐츠의 가격 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 법제도적 측면

### □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정가제 판매) 문제

-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종이책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제도와 부가가치세(VAT) 감면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전자책에 대해서는 이제도를 자동적으로 적용하진 않음
  - 프랑스는 도서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의 강력한 법적 근거인(랑법, Loi Lang)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자책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음. 2011년부터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전자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2012년 1월부터 재판매가격 유지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스페인은 현재의 ‘출판법(Book Law)’이 종이책과 전자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 독일은 아직까지 전자책의 할인판매가 허용되고 있어, 출판사와 서점의 조합체인 Börsenverein은 현재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가 전자책에도 적용될 수 있게 정부관계자를 설득하고 있음(BISG&APP, 2012)
  - 반면 영미권의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과 미국은 도서분야에 대해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는 전자책의 자유로운 판매가격 책정이 얼마든지 용인되고 있음
  - 대부분의 유럽 대륙(스웨덴 제외)은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출판사가 책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하게 됨. 따라서 종이책은 유럽이 미국보다 1.5~2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음
  - 전자책의 경우도 유럽대륙은 가격이 종이책 가격에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책의 제작비 정도를 뺀 10~20%의 할인이 전자책의 적정가격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표 10>은 이러한 영미권과 유럽대륙권의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과 미국,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하여 이들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 가격 할인율을 비교 분석한 것임
  - 먼저, 종이책의 할인율을 보면,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종이책의 평균 정가가 18.73유로와 19.49유로이고, 종이책의 평균 판매가격은 10.68유로와 11.33유로로서 평균 43%와 42%의 할인판매율이 적용되고 있음. 반면에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



에서는 종이책의 평균 정가가 20.98유로와 16.35%이고, 종이책의 평균 판매가격은 19.93유로와 16.35유로로서 거의 할인판매가 허용되고 있지 않음. 프랑스는 5%의 할인이 허용되고 독일은 전혀 할인이 없었음  
- 그러나 전자책의 경우, 비록 독일과 프랑스에서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전자책의 특성상 정가를 애초부터 싸게 책정해 놓고 있어 종이책에 비해 가격이 평균 21%(프랑스), 23%(독일)정도 싼 편임. 이러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가격 차이는 각각 9%와 11%의 차이에 불과한 영국과 미국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sup>1</sup> 종이책과 전자책 베스트셀러 10위내 소설의 평균가격 비교 (2011년 9월 첫째 주 기준) (단위: 유로, %)

국가	평균가격	종이책 평균 할인가격	평균 할인율	전자책 평균 할인가격	종이책 대비 전자책 할인가격
영국	18.73	10.68	43	9.71	9
미국	19.49	11.33	42	10.13	11
프랑스	20.98	19.93	5	15.80	21
독일	16.35	16.35	0	12.66	23

\* 출처 : PublishersWeekly, The Bookseller/Nielsen, Livres Hebdo/Ipsos, and Der Spiegel/buchreport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비교분석

- 결국, 전체적으로 종이책이나 전자책의 평균 판매가격은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유럽이 훨씬 더 높았으나, 종이책 판매가격 대비 전자책 판매가격의 할인율은 유럽대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유럽대륙은 많은 국가들은 전자책도 엄격한 정가제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올 1월부터 전자책의 정가제 판매를 시행하고 있음
- 한편, 아시아 국가에서도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는 출판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종이책이나 전자책 모두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법으로 지키게 규정해 놓았고(전자책의 정가 판매는 올 7월부터 시행됨), 일본도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채택하여 전자책의 경우도 정가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VAT) 감면 문제

-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책은 일반 상품의 부가가치세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전자책은 일반 상품의 부가가치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종이책보다는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은 편  
- 대륙별 주요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의 부가가치세율을 비교해 볼 때, 조사대상국 중 24%가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종이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 상품보다 현격히 낮게 적용하고 있었음  
- 그러나 전자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일반상품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음. 아직도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 세율을 일반 상품과 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많음. 이렇게 종이책과 전자책의 부가가치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자책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표 11 | 대륙별 주요 국가의 종이책과 전자책 VAT 비교(2011년 기준)

국가명		종이책 VAT	전자책 VAT	일반 상품 VAT
아시아	호주	10%	10%	10%
	중국	면제 또는 2~13%	13%	13%
	인도	면제	면제	13.5%
	인도네시아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10%	10%
	이란	면제	불명확	1.5%
	일본	면제 또는 5%(분야별 차등적용)	면제 또는 5%	5%
	한국	면제	면제	10%
	뉴질랜드	15%	15%	15%
	필리핀	면제	불명확	12%
	싱가포르	7%	7%	7%
	대만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5%	5%
	태국	면제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10%
	베트남	면제 또는 5%	면제 또는 5%	10%
유럽	오스트리아	10%	20%	20%
	벨기에	6%	21%	21%
	불가리아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20%	20%
	체코	10%	20%	20%
	덴마크	25%	25%	25%
	핀란드	9%	23%	23%
	프랑스	5.5%	5.5%(분야별 차등적용)	19.6%
	독일	7%	19%	19%
유럽	그리스	6.5%(분야별 차등적용)	23%	23%
	헝가리	5%	5%(분야별 차등적용)	25%
	아일랜드	면제	21%	21%
	이태리	4%	20%	20%
	리투아니아	9%	21%	21%
	네덜란드	6%	6%(분야별 차등적용)	19%
	노르웨이	면제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25%
	폴란드	5%	5%(분야별 차등적용)	23%
	포르투갈	6%	6%(분야별 차등적용)	23%
	루마니아	9%	9%(분야별 차등적용)	24%
	러시아	10%(분야별 차등적용)	18%	18%
	스페인	4%	4%(분야별 차등적용)	18%
	스웨덴	6%	6%(분야별 차등적용)	25%
	스위스	2.5%(분야별 차등적용)	8%	8%
	터키	8%	8%(분야별 차등적용)	18%
	영국	면제	20%	20%



중동	이스라엘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16%	16%
	요르단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불확실	16%
	레바논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10%	10%
	예멘	5%	5%	5%
아프리카	알제리	7%	17%	17%
	이집트	면제	불명확	-
	모로코	면제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20%
	카메룬	면제	면제	19.25%
	케냐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면제	16%
	나이지리아	면제	불확실	5%
	남아프리카공화국	14%	0%(분야별 차등적용)	14%
아메리카 대륙	아르헨티나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불확실	21%
	브라질	면제	불확실	18%
	멕시코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불확실	15%
	페루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면제(분야별 차등적용)	19%
	베네수엘라	면제	불확실	12%
	캐나다	5%	5%	5%

\* 분야별 차등적용은 출판 장르분야별로 해당 %로 감소를 시켜주거나(면세 포함), 아니면 일반 상품의 VAT비율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

\* 출처 : IPA(2011), VAT/GST/Sales Tax Rates : Global survey on books & electronic publications

-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위원회(EC)는 책은 제품으로 인정하지만, 전자책은 소비자가 단지 사용권을 얻어 사용하는 서비스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에 대해 유럽무역연합과 유럽출판협회(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유럽출판협회는 전문 출판 콘텐츠(professional published content)를 담고 있는 전자책에 대해서도 종이책만큼의 부가가치세 감세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http://bit.ly/Are0ef>)
- 유럽의 주요 국가 중 전자책에 대해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정도이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일반 상품과 똑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음
- 아시아지역에는 한국, 일본, 인도 정도가 전자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카메룬과 케냐가 전자책에 대해서도 종이책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3. 불법복제 문제

- 전자책에 대한 또 다른 논란거리는 해킹에 의한 불법복제의 만연이라는 문제임. 아직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출판 콘텐츠를 아날로그 방법 또는 디지털 방법으로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The Media Piracy Report: Media Piracy in Emerging Economies, <http://bit.ly/xUBrrK>)
  - 특히 디지털 방식에 의한 불법복제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한 불법복제보다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또한 불법복제가 이뤄지면 불법복제물을 단속해 폐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복제에 의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음. 따라서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등은 대부분 전자책 출간을 꺼려왔음.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도 해리포터 시리즈가 처음 출간된 지 15년 후, 해리포터 시리즈가 완간된 지 5년 후인 올 초에 와서나 해리포터 시리즈를 전자책으로 출간하기 시작했음
  - 전자책 분야의 불법복제가 만연하는 경향은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프랑스의 경우 2011년 초반 베스트셀러의 합법적인 전자책 제작률이 33%인데, 불법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파일로 프랑스 베스트셀러를 볼 수 있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은 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http://bit.ly/xOtHE3>)
  - 독일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해, 2011년 11월 독일 베스트셀러 소설 10권 중 7권이 불법복제된 ePub나 PDF 형태의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불법복제의 만연이라는 출판계의 현실이 전자책의 확산과 발전을 가로 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불법복제 전자책의 유통은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임. 토렌트 사이트에 가면 수많은 디지털 출판콘텐츠 소스파일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파일은 주로 장애인용 전자도서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입력한 파일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해당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것임. 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내용이 입력된 이런 디지털 파일은 간단한 변환만 거치면,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단말기에서 사용될 수 있음

### 4. 유통방식 문제

#### □ 전자책 유통 플랫폼 문제

-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권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태블릿 PC나 전자책 전용 단말기를 선호함. 특히 유럽권에서는 아이패드를 중심으로 한 태블릿PC가 전자책을 읽는 도구로 점차 인기를 얻고 있는 중
  - 그러나 유럽의 전통 깊은 독서문화를 생각할 때, 책읽기에 적합한 도구인 전자책 전용단말기의 선전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아마존은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에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킨들 상품군을 판매하기 위한 치열한 마케팅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음. 일례로 아마존은 2011년 9월 독일에서 킨들 독일버전을 런칭할 때 99유로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킨들 터치를 판매하기도 했음. 점차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유럽의 전자책 시장에서 태블릿PC와 전자책 단말기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Buchreport, <http://www.buchreport.de>)





- 한편, 세계 각국의 출판사와 전자책 관련 업체들의 활발한 노력 속에 점차 전자책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존(Amazon), 애플(Apple), 구글(Google), 코보(Kobo) 등임
- 아마존은 이미 세계 8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종이책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 킨들과 킨들 태블릿을 기본 플랫폼으로 전자책 유통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음
- 애플은 아이패드이나 아이폰을 통해 전자책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애플은 전자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아이북스(iBooks) 서비스를 만들었으며,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마켓인 아이튠즈(iTunes)에서도 전자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음
- 구글은 구글 디지털 도서관 사업이 잠시 주춤한 상황이지만, 구글북스를 통해 전자책 사업을 시작했음. 구글의 전자책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소니 전자책 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단말기, 태블릿 PC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캐나다 전자책 회사인 코보(Kobo)는 유럽의 주요 출판시장에 현지화된 전자책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 대표적으로 독일의 'Libreka 프로젝트'가 코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이렇게 전자책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현상은 국가별·지역별 출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난 수년간 프랑스와 독일은 구글과 같은 기업이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 세계 지식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구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음. 또한 아마존이나 애플 등과 같은 기업이 미국의 출판유통 방식대로 자유로운 할인판매를 시도하려는 노력에도 강력히 제동을 걸며 전자책에서도 재판매 가격 유지제도를 차츰 정착시키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이 유럽대륙과 아시아지역의 많은 국가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출판문화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음

#### □ 유통방식의 문제

- 전자책의 유통방식은 크게 도매 모델(wholesale model)과 대행 모델(agency model)으로 나뉘고 있음. 도매 모델은 종이책의 온라인 판매 모델과 흡사해서 판매되는 책값의 결정은 유통사(주로 서점)가 주도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임. 즉, 출판사가 매겨준 책값과는 상관없이 유통회사가 책의 마진율을 생각해 판매되는 책값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아마존이 사용하고 있음
- 반면에 대행 모델은 유통사는 책의 판매 공간을 제공할 뿐이며, 판매되는 책값의 결정은 출판사나 전자책 회사가 하는 방식임. 다만, 유통사는 전자책의 판매를 대행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취하게 됨. 주로 애플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애플은 전자책 유통대행 수수료를 판매가격의 30%를 받고 있음
- 적어도 미국 시장만을 놓고 보면, 대행 모델이 점차 자리를 잡아나가는 것처럼 보였음. 대형 5개 출판사의 요구에 의해 아마존도 자신의 사이트와 단말기 이외에서는 대행 모델 체제를 수용할 것에 합의했음. 이 모델은 출판사들이 전자책의 소매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전자책 소비자가격의 70%를 배분받으며,





- 애플이나 아마존 등 전자책 유통업체는 30%의 몫을 갖게 되는 구조임(이용준, 2012)
- 그러나 최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애플의 대행 모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무부는 애플을 상대로 주요 출판업체들과 담합을 했다고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애플은 오히려 아마존이 출혈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전자책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밝히는 등 전자책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최근 상황은 아마존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자책 콘텐츠의 유통방식과 이익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유통업체간, 또는 출판사와 유통업체간의 갈등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 영어 도서의 이용 증가 문제

- 대부분의 유럽 대륙(스웨덴 제외)은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 가격에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으며, 종이책의 제작비 정도를 뺀 10~20%의 할인이 전자책의 적정가격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이러한 정서는 유럽에서는 출판계와 서점계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왔음.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출판유통시장의 맥락이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음
- 전자책은 언어와 국경의 장벽 없이 쉽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교육수준이 높은 전자책의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이 굳이 모국어 전자책만을 고집하지 않고 영어로 된 전자책도 손쉽게 구매하게 됨에 따라, 전자책의 가격은 전자책 구매에 매우 영향력 있는 변화로 부상하게 되었음. 특히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와 고전문학일수록 독자들은 가격이 싼 전자책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
- 아마존은 전 세계 영어책의 독자를 위해 킨들용 전자책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아마존은 킨들 전자책 단말기용 뷰어 뿐 아니라, 아이패드용 킨들 뷰어, 아이폰용 킨들 뷰어, 안드로이드폰용 킨들 뷰어를 출시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뷰어를 통해 아마존의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를 국경을 초월하여 구매할 수 있게 하였음
- 이렇듯 전자책 시대의 도래는 가격 비교를 통한 저렴한 도서의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어도서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자 유럽의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서서히 자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어도서의 가격에 대해 규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일례로, 영국 작가 Katie Price가 쓴 <Comeback Girl>은 영국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킨들용 전자책 가격보다 독일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킨들용 전자책 가격이 176%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Ruediger Wischenbart, 2012)
- 이렇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나 고전 문학의 경우 영어도서를 이용하려는 경향은 전자책뿐만 아니라, 점차 종이책에도 확산되고 있어 외국의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아니면 아마존의 책 대여 모델을 통해 값싸게 이용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독일 출판협회는 아마존 독일의 책 대여 모델을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음)



## 5. 1인 출판사의 확산과 출판사 무용론

- 전자책 단말기의 확산과 전자책 수요 증가는 1인 출판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촉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음. 이미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장르문학은 전자책 플랫폼을 통한 1인 출판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기존 작가들도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음. 스티븐 코비가 신간을 출판사 없이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하여 화제가 됐으며, 조안 롤링도 해리포터 시리즈의 전자책을 직접 출판해 해리포터 공식사이트인 포터모어(pottermore.com)에서 판매
  - 저자들이 집필한 원고는 왓패드(wattpad), 스매시워드(smashword)나 룰루(lulu) 등 직접출판 전자책 사이트에서 올려 출판하기도 하지만, 아마존이나 애플 등에서 제공하는 직접출판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통되기도 함
  - 애플은 아이북스스토어에서 개인 저자들의 원고를 올려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미국 세금등록번호(EIN)를 발급받고 애플 계정을 갖고 있으면 ISBN을 획득한 후 전자책 포맷인 '이펍(EPUB)' 형식의 콘텐츠를 아이북스스토어에서 판매할 수 있음
  - 또한 아마존도 1인 출판을 위한 전자책 섹션인 '싱글즈'를 운영하며 저자의 직접출판을 지원하고 있음(이용준외, 2012)
  - 전자책 시대에 이러한 1인 출판의 활성화와 이들이 출판한 전자책의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출판사의 무용론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종이책 판매량의 감소에 따라 움츠러들고 있는 각국의 출판사에게 위기의식을 심화시키고 있음
  - PWC의 <The Future of e-Book>에 따르면, 전자책의 성장동력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콘텐츠의 접근성(69%), 단말기(59%), 소비자 습관의 변화(46%), 이동 접속성(45%), 저렴한 가격(38%), 이용자 친화성(31%)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1인 출판은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전자책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 국외자료

BISG&APP(2012). BookStats 2012.

Informa(2012). The Academic Book Business.

Japan Federation of Printing Industries(2011). Japan- 12th forum of asian graphic arts technology.

Kathryn Zickuhr, Mary Madden(2012). Public libraries in the digital age.

Kristen Purcell(2012). Books or Nooks?

Lee Rainie(2012). The rise of e- reading and the changing role of public libraries, Pew Research



Center,

NewZealand Trade and Enterprise(2012). Book Publishing – Focus on education.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2012 – 2016.

ReportLinker(2012). Book Publishing Industry: Market Research Reports, Statistics and Analysis.

Ruediger Wischenbart(2012). The Global eBook Market : Current Conditions & Future Projections, O'Reilly Media.

Buchreport, <http://www.buchreport.de>

China Publishing Today, <http://www.chuban.cc>

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http://www.fep-fee.be>

Informazioni Editoriali Italy, <http://www.ibuk.it>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internationalpublishers.org>

Livres hebdo, <http://www.livreshebdo.fr>

Online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online-publishers.org>

Professional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ppa.co.uk>

Publishers Association UK, <http://www.publishers.org.uk>

Publishers Weekly, <http://www.publishersweekly.com>

The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http://www.publishers.org>

<http://libraries.pewinternet.org/2012/04/04/the-rise-of-e-reading/>

<http://libraries.pewinternet.org/2012/06/22/libraries-patrons-and-e-books/>

<http://www.pwc.com/gx/en/global-entertainment-media-outlook>

#### □ 국내자료

이용준, 김원제, 정세일(2012). 구텐베르크의 귀환, 이담북스

한국출판연구소(2012). 한국 출판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현황조사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2010). 2010 해외 콘텐츠 시장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11a). 2011 해외 콘텐츠 시장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011b). 2011년 해외 콘텐츠 기업 디렉토리